

주간 전남 농업

VOL. 242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2019년 7월 셋째주

주간 날씨정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음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올 여름 태풍 피해 없도록 사전 관리 하세요”

정책동향 및 홍보 국가대표 한우 씨수소 16마리 뽑아

전남 시군 농정 동향 순천시, 7월16일 ~19일까지 밤나무 항공방제 실시

해외 농업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19. 07. 15. 시카고 선물거래소)



전라
남도 농업기술원
Jeolla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5

- ▶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20 ~ 23도, 최고기온 : 27 ~ 31도)과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4 ~ 14mm)보다 많겠음

2. 농산물 관측정보 6

- ▶ 토마토(일반) 출하전망 및 가격전망
- ▶ 방울토마토(대추형) 출하전망 및 가격
- ▶ 참외 출하전망 및 가격전망
- ▶ 수박 출하전망 및 가격전망
- ▶ 풋고추(청양계) 출하전망 및 가격전망
- ▶ 풋고추(일반) 출하전망 및 가격전망
- ▶ 애호박 출하전망 및 가격전망
- ▶ 오이(취청) 출하전망 및 가격전망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5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9

- ▶ 단단하고 즙이 풍부한 ‘장성양파’ 대만에서도 인정
- ▶ 해풍맞은 ‘신안 단호박’ 일본 수출길 오르다. "맛과 품질 좋아 일본에서 웰빙식품으로 인기짱"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22

- ▶ 고춧가루 저장 ‘온도’와 ‘습도’ 관리 필수
- ▶ “올 여름 태풍 피해 없도록 사전 관리 하세요”
- ▶ 여름철 돼지 액상 정액, 위생적인 관리가 중요해요

6. 정책 동향 및 홍보안내 27

- ▶ 국가대표 한우 씨수소 16마리 뽑아
- ▶ 전남농기원, 치유농장 소득화 모델개발 현장적용 나서
- ▶ ‘전 세계 신기한 수박 한자리에 모였네!’
- ▶ 전남지역 올해 벼 재해보험 가입 전국 최다
- ▶ 직거래사업자, 밀착지원으로 경영에 안정을!
- ▶ 농업분야, 폭염·호우·태풍 피해예방 이렇게 !!!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6

- ▶ 순천시, 7월16일 ~19일까지 밤나무 항공방제 실시
- ▶ 담양군, ICT 기술 활용해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한다
- ▶ 곡성군, 토란소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만찬주 선정
- ▶ 곡성군, ‘곡성에서도 애플망고가 자랍니다’
- ▶ 곡성군, 쫄쫄달콤한 삼기 흑찰옥수수 본격 출하
- ▶ 고흥군, 2019년 마늘 재배기술 교육 실시
- ▶ 보성군, 명품「보성키위」육성 프로젝트 스타트!
- ▶ 화순군, 여름철 농작물 관리 총력
- ▶ 해남군, 버섯종균배양센터 준공 종자산업 기반구축
- ▶ 무안군, 단호박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각광
- ▶ 영광군, 조생종 벼 출수 후 포장관리 당부!

8. 해외 농업정보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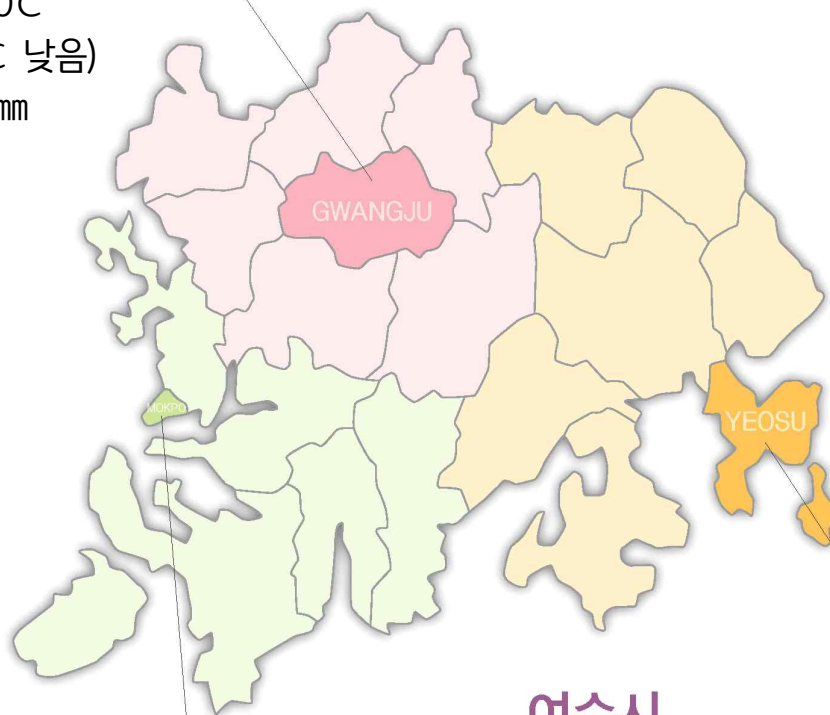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7. 15. 시카고 선물거래소)

9. 농식품 빅데이터(관측) 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49

- ▶ 농촌진흥청 농사로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25.9℃
(평년대비 0.℃)
- 최고기온 : 29.7℃
(평년대비 0.2 낮음)
- 최저기온 : 22.0℃
(평년대비 0.8℃ 낮음)
- 강 수 량 : 8.9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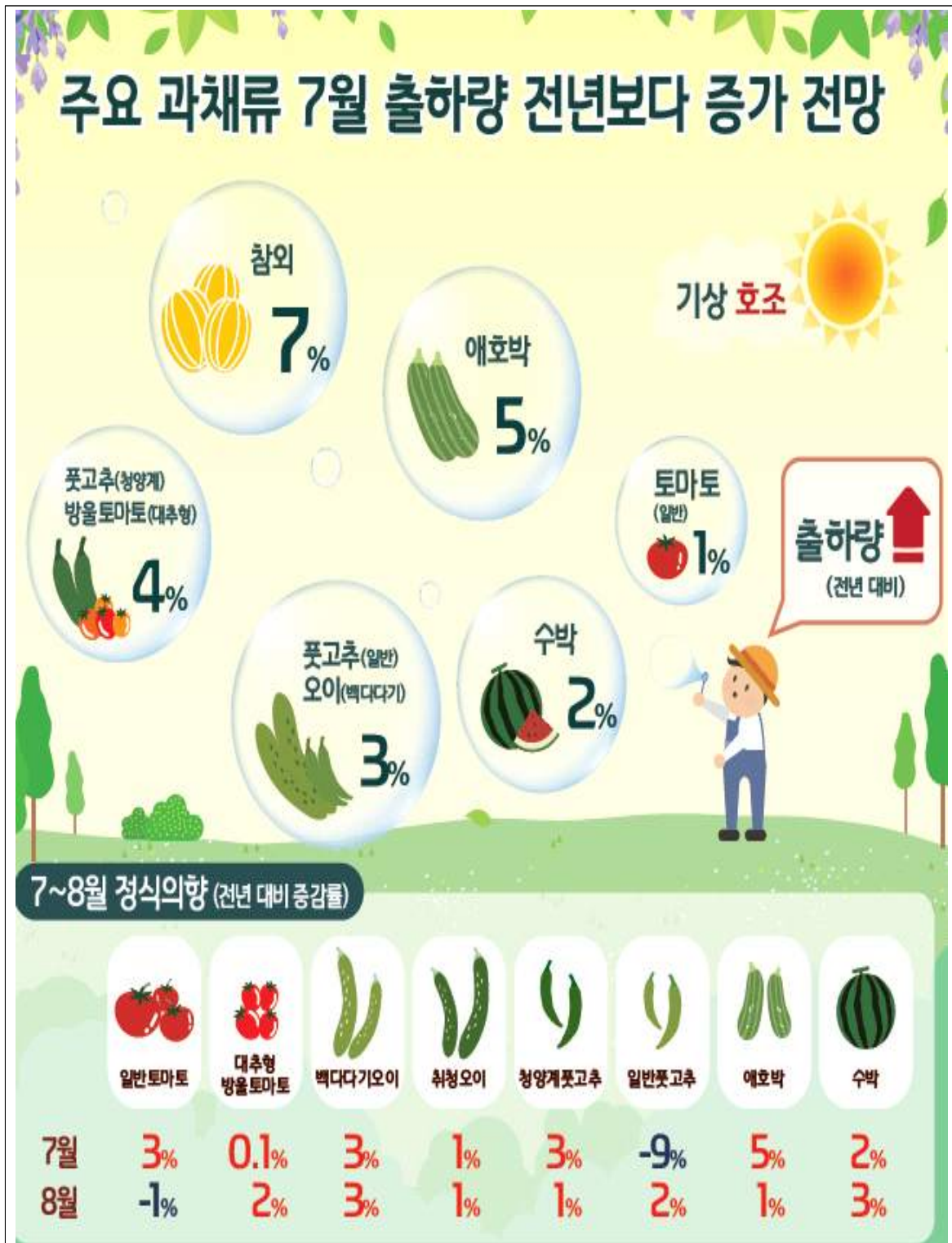


목포시

- 평균기온 : 25.1℃
(평년대비 0.0℃)
- 최고기온 : 28.1℃
(평년대비 0.6℃ 낮음)
- 최저기온 : 22.1℃
(평년대비 0.5℃ 낮음)
- 강 수 량 : 6.9mm

여수시

- 평균기온 : 24.8℃
(평년대비 0.2℃ 높음)
- 최고기온 : 27.0℃
(평년대비 0.5℃ 낮음)
- 최저기온 : 22.6℃
(평년대비 0.1℃ 높음)
- 강 수 량 : 8.8mm





토마토(일반) 출하전망 및 가격전망

● 출하전망 : 7월 출하량 전년보다 1% 증가 전망

- 7월 출하면적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강원 철원에서는 6월 밤 기온 하락으로 지연되었던 생육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화천·평창, 전북·영남지역 에서는 전년보다 기상여건이 좋아 작황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반면, 강원 춘천, 경기지역에서는 바이러스 및 병충해 (궤양병, 총채벌레 등)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8월 출하면적은 호남·영남·충남지역에서 여름철 고온 이전에 출하를 조기 종료하려는 농가 의향이 높아 전년 보다 1% 감소할 전망이다.

● 가격전망 : 7월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7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1만 3,400원)보다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1만~1만 3천 원으로 전망된다.



방울토마토(대추형) 출하전망 및 가격전망

● 출하전망 : 7월 출하량 전년보다 4% 증가 전망

- 7월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충청·호남·강원지역에서는 신규 및 기존 농가의 시설 면적이 확대되는데다, 대추형 방울토마토로 작목을 전환한 농가가 늘어 출하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충남 부여에서는 여름철 작기 재배를 위해 5~6월에 정식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반면, 경기지역에서는 전년 출하기 가격 약세로 타 작목으로 전환한 농가가 많았고, 출하를 조기에 종료하려는 농가 의향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따라서 7월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4%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8월 출하면적은 충청·호남·강원지역에서의 정식면적이 증가하였고, 대추형 방울토마토로 작목을 전환한 농가도 많아 전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전망 : 7월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7월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9,000원)보다 낮은 상품 3kg 상자에 7천~9천 원으로 전망된다.



참외 출하전망 및 가격전망

● 출하전망 : 7월 출하량 전년보다 7% 증가 전망

- 7월 참외 출하면적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정식면적은 농가 고령화 및 타작목 전환으로 감소하였으나, 전년보다 작황이 양호하고 시세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출하를 연장하려는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조사되었다.
- 7월 단수는 전년보다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 7월에는 폭염으로 인한 착과 불량 등 작황이 부진하였으나, 금년에는 기상 호조로 착과율이 높고 전반적인 생육도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따라서 7월 출하량은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7%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7월 순별 출하 비중은 상순 44%, 중순 33%, 하순 23%로 하순으로 갈수록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8월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 8월에는 7월 폭염으로 인한 고사피해로 출하를 포기한 농가들이 많았으나, 금년에는 재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가격전망 : 7월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7월 참외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2만 1,500원) 보다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1만 6천~1만 9천 원으로 전망된다.
- 7월 상순에는 1만 4천 원 내외를 유지하겠으나, 중순 부터 상순 대비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박 출하전망 및 가격전망

● 출하전망 : 7월 출하량 전년보다 2% 증가 전망

- 7월 수박 출하면적은 전년 출하기 가격 강세에 따른 정식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2% 늘어날 전망이다.
- 강원 양구에서는 작년 주 출하시기(7월 하순~8월 상순)에 가격이 높아 출하면적이 증가하겠으며, 전북 고창에서는 노지수박 위주로 출하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7월 단수는 전년보다 1%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전북 고창에서는 생육기 저온으로 공동과 발생이 전년보다 늘었고, 충남 부여에서는 바이러스 발생 증가로 단수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 따라서 7월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가 증가하여 전년보다 2%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전망 : 7월 가격 전년 대비 하락 전망

- 7월 수박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1,880원)보다 낮은 상품 1kg에 1,500~1,800원으로 전망된다.
- 7월 상순 가격은 잦은 비로 소비가 부진하였던 전년보다 높은 1,500~1,600원 수준이 예상된다. 중·하순에는 상순보다 기온이 높고, 초복(12일)·중복(22일) 시기 소비 증가로 상순 대비 가격은 높겠으나, 전년보다는 낮은 1,700~1,800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풋고추(청양계) 출하전망 및 가격전망

● 출하전망 : 7월 출하량 전년보다 4% 증가 전망

- 7월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지역에서는 타 품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병해에 강한 청양계풋고추로 품종을 전환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 호남지역에서는 정식기 월동배추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배추에서 청양계로 작목을 전환한 농가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7월 단수는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지역의 경우 생육 초기부터 병 발생이 많아 작황이 좋지 않겠으나, 강원지역은 폭염 피해(착과 불량)가 있었던 전년보다 작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7월 출하량은 출하면적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4%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8월 출하면적은 강원지역에서 청양계 풋고추로 품종을 전환한 농가가 증가하여 전년보다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전망 : 7월 가격 전년 대비 하락 전망

- 7월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4만 700원)보다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3만 3천~3만 7천 원으로 전망된다.



풋고추(일반) 출하전망 및 가격전망

출하전망 : 7월 출하량 전년보다 2% 증가 전망

- 7월 일반풋고추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강원과 영남지역에서 전년 출하기 가격이 높아 정식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7월 단수는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지역 에서는 고온피해가 있었던 전년보다 작황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강원 인제·횡성지역에서는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따라서 7월 출하량은 출하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3%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전망 : 7월 가격 전년대비 하락 전망

- 7월 일반풋고추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4만 6,100원)보다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3만 8천~4만 3천 원으로 전망된다.



애호박 출하전망 및 가격전망

🌱 출하전망 : 7월 출하량 전년보다 5% 증가 전망

- 7월 애호박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강원지역에서는 전년 출하기 가격이 높아 기존 농가의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반면, 출하가 마무리 단계인 충북 청주에서는 연작피해 (시들음병) 면적이 늘어 출하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조사 되었다.
- 7월 단수는 노지재배 비중이 큰 강원지역(홍천, 화천)의 기상여건이 좋아 전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반면, 충북 청주에서는 기온하락과 연작피해 등으로 단수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 따라서 7월 애호박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5% 많을 전망이다.
- 8월 출하면적은 주 출하지인 강원지역에서 재배면적이 늘어 전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가격전망 : 7월 가격 전년보다 높을 전망

- 7월 애호박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8,800원)보다 낮은 상품 20개에 6천~8천 원으로 전망된다.



오이(취청) 출하전망 및 가격전망

● 출하전망 : 7월 출하량 전년보다 2% 감소 전망

- 7월 취청오이 출하면적은 충청과 호남지역에서 기존 농가의 재배면적 확대로 전년보다 1% 증가할 전망이다.
- 7월 단수는 전년보다 2% 감소할 전망이다. 6월 야간기온 하락으로 7월 중순까지 출하량이 적겠지만, 이후 강원 지역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출하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 따라서 7월 출하량은 단수 감소로 전년보다 2% 적을 전망이다.

● 가격전망 : 7월 가격 전년보다 높을 전망

- 7월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1만 4,800원)보다 높은 상품 50개에 1만 7천~2만 원으로 전망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9. 07. 15. 기준 / 단위: 원)

식량작물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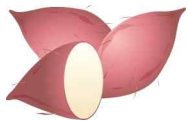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15)	1주일전 (7/8)	전년대비
20kg	48,980	48,980	↑ 6.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8,980	45,865	39,533	↑ 23.9

콩(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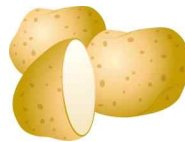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15)	1주일전 (7/8)	전년대비
35kg	198,200	198,200	↑ 9.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7,450	181,000	155,000	↑ 27.9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15)	1주일전 (7/8)	전년대비
10kg	29,600	30,600	↓ 34.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7,150	45,450	34,123	↓ 13.3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15)	1주일전 (7/8)	전년대비
20kg	21,000	20,800	↓ 26.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3,325	28,450	25,763	↓ 18.5

채소류

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15)	1주일전 (7/8)	전년대비
10kg	7,600	6,800	↓ 16.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150	9,050	7,812	↓ 2.7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15)	1주일전 (7/8)	전년대비
8kg	5,800	6,200	↓ 3.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75	5,980	5,920	↓ 2.0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15)	1주일전 (7/8)	전년대비
100개	43,333	43,667	↓ 16.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4,167	52,000	46,548	↓ 6.9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15)	1주일전 (7/8)	전년대비
20개	12,000	12,200	↓ 14.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875	14,100	14,167	↓ 15.3

채소류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15)	1주일전 (7/8)	전년대비
30kg	560,600	560,600	↓ 6.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68,600	600,000	369,667	↑ 51.6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15)	1주일전 (7/8)	전년대비
10kg	48,400	37,200	↑ 14.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3,200	42,300	43,020	↑ 12.5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15)	1주일전 (7/8)	전년대비
20kg	90,000	95,000	↓ 28.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00,000	125,000	125,000	↓ 28.0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15)	1주일전 (7/8)	전년대비
20kg	8,400	8,400	↓ 38.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950	13,700	16,607	↓ 49.4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15)	1주일전 (7/8)	전년대비
20kg	31,200	31,000	↓ 28.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3,600	43,760	31,893	↓ 2.2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15)	1주일전 (7/8)	전년대비
1kg	1,780	1,560	↑ 13.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40	1,565	1,522	↑ 17.0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15)	1주일전 (7/8)	전년대비
5kg	13,200	13,000	↓ 20.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075	16,615	14,665	↓ 10.0

수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15)	1주일전 (7/8)	전년대비
1개	18,800	17,800	↑ 10.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300	17,065	15,878	↑ 18.4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15)	1주일전 (7/8)	전년대비
10kg	17,400	16,800	↓ 14.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300	20,250	16,920	↑ 2.8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15)	1주일전 (7/8)	전년대비
5kg	13,600	14,000	↓ 1.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050	13,800	13,457	↑ 1.1

과일류

사과(후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15)	1주일전 (7/8)	전년대비	
10kg	42,800	42,400	↑	12.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3,650	38,150	42,001	↑	1.9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15)	1주일전 (7/8)	전년대비	
15kg	65,600	65,600	↑	88.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8,700	34,800	48,787	↑	34.5

참다래(수입)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15)	1주일전 (7/8)	전년대비	
10kg	42,000	41,800	↑	0.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1,800	41,800	43,633	↓	3.7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15)	1주일전 (7/8)	전년대비	
100g	8,454	8,350	↑	7.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179	7,894	7,391	↑	14.4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15)	1주일전 (7/8)	전년대비	
1kg	5,088	5,168	↑	6.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235	4,797	5,377	↓	5.4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15)	1주일전 (7/8)	전년대비	
30kg	498,600	498,600	↑	0.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8,600	498,100	526,333	↓	5.3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15)	1주일전 (7/8)	전년대비	
2kg	13,200	12,400	↓	10.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400	14,800	14,597	↓	9.6

새송이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15)	1주일전 (7/8)	전년대비	
2kg	6,600	6,400	↓	12.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900	7,532	7,631	↓	13.5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15)	1주일전 (7/8)	전년대비	
100g	1,917	1,946	↓	14.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70	2,253	2,260	↓	15.2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15)	1주일전 (7/8)	전년대비	
30개	5,169	5,144	↑	24.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029	4,150	5,698	↓	9.3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15)	1주일전 (7/8)	전년대비	
1L	2,616	2,616	↑	3.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13	2,528	2,542	↑	2.9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9. 07. 15. 기준 / 단위 : 원)

한우(천원/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633	5,618	5,551	↑ 0.3	↑ 1.5
거세	6,920	6,982	6,840	↓ 0.9	↑ 1.2

한우송아지(천원/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347	3,383	3,104	↓ 1.1	↑ 7.8
수	4,323	4,301	4,023	↑ 0.5	↑ 7.5

육우(천원/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279	3,284	3,41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2	↓ 3.8

젖소수송아지(천원/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476	473	22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6	↑ 109.7

돼지(천원/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86	391	45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3	↓ 15.4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999	977	1,45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2.3	↓ 31.4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991	1,017	755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2.6	↑ 31.3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200	2,200	2,172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0	↑ 1.3

*자료 출처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단단하고 즙이 풍부한 ‘장성양파’ 대만에서도 인정

- 장성군, ‘양파 특별 소비 대책’에 총력...대량 소비처 판촉, 해외수출, 가공 확대 등 -

- 장성군이 작황호조로 가격하락을 겪고 있는 햇양파의 가격지지를 위한 특별 소비 대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올해 양파는 작년 대비 20% 이상 생산량이 증가하고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감소로 가격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장성군은 대량 소비처 판촉, 해외수출, 가공확대 등 ‘특별 소비 대책’을 통해 올해 양파 생산량 1만여 톤 중 1,500톤을 소화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장성군과 공직자뿐만 아니라 관내 농협과 학교, 외식업중앙회 장성군지부, 기타 생산자 단체들이 참여한다.
- 먼저 장성군은 지난달 24일부터 서울과 목포 등 대도시에 대형마트 특판행사를 열고 양파 판매를 촉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 삼계농협 산지유통센터를 통한 양파 장아찌 가공과 양파 소비촉진 운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양파즙 가공도 20톤 규모까지 확대하고 있다.
- 여기에 삼계농협이 장성군 최초로 대만에 400톤의 양파를 수출하게 되어 금번 햇양파 특별 소비대책의 목표량 달성에 큰 힘을 보태게 됐다. 지난 4일 삼계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유두석 장성군수와 김태욱 삼계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NH농협무역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성양파 대만 첫 수출 선적식’이 열렸다. 첫 수출물량은 24톤이며, 총 15회에 걸쳐 400톤의 양파를 수출할 계획이다.

- 장성양파는 달고 아삭하며즙이 풍부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또 단단하고 저장성이 좋아 대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국, 뉴질랜드, 일본이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만의 수입양파시장에 장성양파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첫 물꼬를 텃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장성군은 ‘양파 사주기 운동’을 펼쳐 군 공직자, 군청사 구내식당(백암홀), 외식업중앙회군지부, 지역경제인협의회 등으로부터 양파 구입 신청을 받았다.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취합된 신청 물량 20kg 315망을 지난 3일 군청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였다.
-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양파 대만 첫 수출 및 양파 사주기 운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재배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관내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수출사업 확대 및 유통체계 구축 등 다각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 장성군

● **해풍맛은 ‘신안 단호박’ 일본 수출길 오르다. "맛과 품질 좋아 일본에서 웰빙식품으로 인기짱"**

- 전남 신안군 청정지역 게르마늄 토질에서 해풍 맞고 자라 맛과 품질이 좋은 단호박 180톤을 일본에 수출한다.
- 신안에서 생산된 단호박은 39농가가 수출대행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지난 4월에 37.5ha를 정식하여 6월에 450톤을 생산했다.
- 그중 180톤을 일본에 수출하고 나머지 270톤은 내수 판매를 통해 3억 8천만 원의 농가소득이 예상된다.
- 청정해역으로 잘 알려진 신안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단호박은 비타민 B와 C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칼슘·무기염류·당질이 풍부하며 항암효과, 노화방지, 변비 등에 좋은 웰빙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 특히 다이어트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국내 소비자는 물론 일본에서도 큰 각광을 받고 있다.
- 박우량 신안군수는「수출단호박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생력농기계화 및 재배면적 확대 등을 통한 지역특화작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신안군

☞ 고춧가루 저장 ‘온도’와 ‘습도’ 관리 필수

- 농촌진흥청, 고춧가루 곰팡이 발생 줄이는 저장 요령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 곰팡이와 곰팡이독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고춧가루와 건고추 저장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 고춧가루와 말린 고추(건고추)에 발생하는 주요 곰팡이는 아스퍼질러스(*Aspergillus* sp.)와 페니실리움(*Penicillium* sp.)으로 습한 환경에서 쉽게 증식한다.
- 특히 일부 아스퍼질러스종은 아플라톡신이나 오크라톡신 등 곰팡이독소를 생성하며, 이 독소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고춧가루와 건고추는 수개월 이상 저장하면 온·습도에 따라 곰팡이 발생이 쉬워 적정 환경에서 저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다양한 온도(-20℃, 0℃, 4℃, 10℃)와 습도(51%, 69%, 93%)에서 10개월 이상 실험한 결과, 건고추보다 고춧가루에서 곰팡이 발생량이 많았다.
- 곰팡이 발생이 가장 적은 온도는 건고추의 경우 0℃, 고춧가루는 10℃였으며, 습도는 69% 이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올 여름 태풍 피해 없도록 사전 관리 하세요”

- 논 · 밭두렁 물길 정비...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지지대 보강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을 당부하고,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 최근 5년(2014~2018)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평균 3.6개로 이 가운데 65%정도가 7~8월 사이에 발생 한다.
- 벼와 밭작물은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물길(배수로)에 난 잡초는 미리 뽑아준다. 논두렁과 밭두렁, 제방 등이 폭우에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흙을 다져주거나 비닐 등을 덮는다.
- 비가 계속 될 경우 작물별로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므로 맑은 날을 선택해 예방적 차원의 방제를 추진한다.
- 강풍에 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설치된 지주는 튼튼히 세운다. 태풍으로 인해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심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파작물(주작물을 대신하여 심는 작물)을 계획한다.
- 노지에서 재배하는 수박, 참외 같은 과채류는 비바람으로 덩굴이 날리거나 꼬이지 않도록 고정작업을 실시한다.
- 과수는 방조망, 비가림 시설 등의 기둥, 철선, 당김줄 등을 견고히 고정하고 약한 곳은 튼튼히 보강한다.
- 뿌리가 약한 나무는 쓰러지기 쉬우므로 받침대를 받쳐 쓰러짐을 방지한다. 폭우로 토양유실이 우려되는 곳은 비닐이나 짚 등을 덮고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은 제방을 정비하고 보수한다.

- 열매 달림이 좋지 않은(착과불량) 과수원은 웃거름 사용 시 질소질 비료를 30~50% 정도 줄인다.
- 축사는 지붕과 벽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수한다. 축사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여 축사 안으로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고, 수해방지를 위한 자재(가마니, 비닐포대 등)를 미리 준비한다.
- 대규모 가축사육시설은 정전에 대비해 비상용 자가발전 시설을 마련하고, 가축 분뇨 저장시설과 퇴비장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한다.
- 시설하우스가 지반이 약한 곳에 설치됐을 경우 비닐의 찢어진 틈이나 파손된 부위로 강한 바람이 들어오면 부압(대기압보다 하우스 안의 기압이 낮음)으로 시설하우스가 떠오르며 기초가 뒹겨 날아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출입문이나 천장과 측장의 여닫이(개폐부)에 바람이 새어들지 않도록 밀폐하고, 비닐이 찢어진 곳은 비닐접착용 테이프로 즉시 보수한다.
- 시설 내에 설치된 전기배선을 정리하여 단선과 누전으로 인한 2차 사고를 방지하고, 자동화시스템 등 전기·전자 장비의 고정 상태를 점검한다.
- 시설하우스 외부는 물길(배수로)을 정비해 침수를 예방하고, 골재와 비닐을 밀착시키기 위해 고정 끈을 설치한다.
- 기초가 약한 비닐하우스는 철항, 근가, 파이프 줄기초 설치 등으로 서까래 파이프의 기초를 강화한다. 또한 위에서 누르는 바람의 압력으로 시설하우스가 주저앉을 수 있으므로 서까래 중앙부에 보조지지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여름철 돼지 액상 정액, 위생적인 관리가 중요해요

- 정액 채취 컵 자외선 소독하고 멸균수로 희석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여름철 돼지 인공수정용 액상 정액을 만들 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덥고 습한 날씨에는 수태지나 돼지우리 주변에 세균이 널리 분포하기 때문에 정액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세균 오염이 증가한다.
- 세균에 오염된 정액을 사용할 경우 새끼수가 줄거나 어미돼지 생식기 질환으로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세균 오염정도가 돼지 정액 성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정액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세균인 대장균과 녹농균을 각각 인공 감염시켜 정자 운동성을 조사했다.
- 그 결과 세균 오염도가 높을수록, 보존일 수가 오래될수록(3일차 이후) 정자 활력이 줄었다. 정액 내의 세균은 정자의 구조 변형을 일으켜 정자의 운동성, 생존성을 떨어뜨린다.
- 정액 채취용 수태지나 채취실, 제조실 등 정액 제조 과정에 사용하는 모든 용기와 기구는 위생관리 지침을 지켜야 한다. 정액 채취자도 부주의하기 쉬우므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 정액 채취 전 : 오염방지를 위해 미리 수태지 포피 입구의 체모를 제거한다. 정액 채취용 컵은 사용 전에 자외선 소독을 하고 사용 전까지 완전히 밀봉한다.

- 정액 채취 : 채취 컵 뚜껑은 열지 않고 내부를 최대한 노출하지 않으며 입구만 살짝 들어 정액을 수집한다. 수태지의 음경은 채취 컵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끝부분을 높게 하여 오염된 정액이 컵 안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정액 채취 후 : 멸균수를 희석제로 사용하거나 희석 액을 필터링한다. 희석제를 섞는 항온수조는 도중에 뚜껑을 열지 않고, 사용 후에는 깨끗이 헹궈낸 후 밀폐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문홍길 양돈과장은 "인공수정으로 번식성적을 높이려면 세균오염을 최소화하고 위생적으로 만든 정액으로 인공수정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가대표 한우 씨수소 16마리 뽑아

- 유전능력 뛰어난 씨수소 새로 선발... 8월부터 정액 공급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혈통·검정자료와 유전체 정보를 활용해 2019년 한우 개량을 이끌 보증씨수소 16마리를 뽑았다.
-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한우개량사업으로, 국립축산과학원·농협경제지주한우개량사업소·한국종축개량협회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국가단위 한우 유전능력 평가를 통해 한우 보증씨수소를 최종 선발한다.
- 씨수소의 유전능력은 혈통등록과 외모심사 결과, 씨수소와 후손의 능력(체중, 육질 등) 검정 결과, 그리고 유전체 정보를 모두 통계 분석해 추정한다.
- 기존에 혈통과 능력 검정자료만 활용해 유전능력을 분석할 때보다 유전체 정보를 추가해 분석했을 때 개체별 유전능력추정값의 정확도가 도체형질 평균 66%에서 70%로 향상됐다.
- 한편, 유전능력 평가 결과 한우는 해마다 도체중 4.83kg, 등심단면적 0.51cm², 근내지방도 0.05점씩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새로 뽑은 보증씨수소 정액은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를 통해 8월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전남농기원, 치유농장 소득화 모델개발 현장적용 나서

- 가족 텃밭 채소 가꾸기 등 치유농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치유농업 활성화와 치유농장의 소득화 모델 개발을 위해 가족체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험 활동 유형별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 이번에 운영하고 있는 가족체험 치유 프로그램은 장성군 삼계면 소재 농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10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지난 5월부터 8회에 걸쳐 진행됐다.
-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 유대관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가족 텃밭 체험과 함께 실내 원예 활동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활동유형별 치유효과와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 가족 텃밭체험 활동은 모종심기, 식물 재배, 텃밭 가꾸기에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을 높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또한 실내 원예활동 프로그램은 다양한 식물소재 및 주제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하는 활동으로, 전문 원예치료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손동모 소장은 “농업인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를 주고, 참여자에게는 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내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전 세계 신기한 수박 한자리에 모였네!’

- 농촌진흥청, 11일 수박 · 멜론 등 박과 유전자원 현장평가회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11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세계 각지에서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박과 유전자원을 소개하는 '박과 유전자원 현장평가회'를 가졌다.
- 이번 현장 평가회는 박과 유전자원의 생육, 형태, 기능성 성분 등 유용 형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우수 자원을 선발하고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 미국, 중국, 조지아 등 40여 나라에서 수집된 660자원을 선보이며,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되는 호피무늬 수박과 네트(그물망 무늬) 멜론, 외국에서 재배되는 크림슨타입 수박, 무(無)네트 멜론 등을 전시했다.
- 종자산업체, 육종가, 연구자, 농업인들에 의해 현장에서 선발된 우수 자원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육종 소재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소과종 수박 수요가 늘고 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수요가 맞물리면서 기능성, 내병성 컬러 수박, 씨없는 수박 등 품종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손성한 센터장은 "이번 현장 평가회는 세계 각지의 다양한 박과 유전자원을 직접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며, "종자산업체와 연구자들이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유한 다양한 박과 유전자원을 폭 넓게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전남지역 올해 벼 재해보험 가입 전국 최다

- 전체 재배면적의 67%...재해 안전장치 역할 기대 -

- 전라남도는 올해 전남지역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면적이 10만 2천ha로 전체 재배면적(15만 3천ha)의 약 67%를 차지,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 이는 전국 34만 1천ha의 30% 규모다. 또한 지난해 8만 8천여 ha보다 1만 4천여 ha(16%)가 늘었다.
- 시군별로는 영광이 벼 재배면적의 96%로 가입률이 가장 높고, 강진 87%, 고흥 80%, 장흥 79%, 진도 72% 등 주로 해안지역에서 높은 가입 실적을 보였다.
- 올해 벼 재해보험 가입이 늘어난 것은 지리적 자연재해 취약성을 감안한 전라남도과 시군 및 농협의 적극적인 가입 홍보활동과 함께 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농업인 인식이 높아진 때문이란 분석이다.
- 전라남도는 올해 벼 등 농작물 재해보험료로 도비 70억 원 등 모두 700억 원을 확보해 가입농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할 방침이다.
- 홍석봉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최근 국지성 호우 등 예고 없는 자연재해가 빈번해 농작물 피해가 상당하다”며 “다행히 지난해보다 벼 등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늘고 있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난해 전남의 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8만 8천ha다. 이 가운데 가뭄·태풍 등 3만 300ha에서 피해를 입어 2만여 농가가 638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출처 : 전라남도



직거래사업자, 밀착지원으로 경영에 안정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7월부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aT) 주관으로 “현장전문가와 함께하는 직거래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직거래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전문가들이 상담을 통해 경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 매장의 경영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일회성으로 끝나는 기존의 단순 상담지원의 개념을 벗어난 밀착지원 방식의 사업이다.
- 정부의 직거래 지원사업이 추진된 2013년부터 농산물 직거래는 사업자 수, 규모 등의 측면에서 성장을 지속해왔다.
- 직거래의 대표주자로 통하는 로컬푸드직매장의 경우 2013년 32개소에서 2018년 229개소까지 늘었으며, 직거래규모는 2013년 16,362억 원에서 40,516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 그러나, 직매장의 절반가량은 아직도 계약생산 및 농가조직화 난항, 홍보 전략 부재, 매장·동선 구성의 어려움 등의 요인으로 인해 매출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aT, 2017 로컬푸드직매장 경영실태조사)
- 농식품부는 매장의 경영안정이 농업인들의 직거래 판로를 유지시켜 주는 선결과제임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직거래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꾸러미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직거래사업자는 직거래종합정보시스템인 “바로정보(www.baroinfo.com)”를 통해 언제든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 상담지원단은 마케팅·홍보, 경영진단 등 매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의 해당지역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되며,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지원이 이루어진다.
-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해당지역 출신의 현장전문가가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 추가지원이 필요한 매장에 대해서는 매장 경영활성화를 위해 교육·홍보·특판 등 필요분야의 사업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영세소농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직거래 판로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거래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직거래사업장의 경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이 필요한 매장은 신청이 없어도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분야, 폭염·호우·태풍 피해예방 이렇게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7~9월에 집중되는 폭염,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가축·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농업인의 중점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 농업인 행동요령 -

- 농업인은 온열질환 등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 낮 시간 농작업은 자제하고 시원한 물을 자주 섭취한다.
 - 시설하우스 등 야외 작업 시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휴식을 자주한다.
 - 거동이 불편한 고령, 신체허약자, 환자는 외출을 자제한다.
 - 가족, 친척, 이웃간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또한, 호우·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 호우, 태풍 특보 발령 시 야외 농작업을 자제한다.
 -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은 대피장소 확인 및 비상연락처를 확인한다.
 - 다리나 하천도로는 안전한지 확인 후 이동한다.
 -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지속 확인한다.

- 폭염 대응 요령 -

- 벼는 논물 흘러대기로 물 온도를 낮추도록 한다.
- 밭작물은 물주기를 하여 토양 속의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고 생육이 부진할 때는 비료 엽면시비를 한다.
 - 고추, 가지, 배추 등 노지작물은 흑색비닐과 차광망을 이용하여 이랑을 피복하고 비가림시설 재배포장은 차광망을 설치하여 토양 수분 증발과 땅 온도 상승을 억제하도록 한다.

- 수박 등 과실을 수확하는 작물은 잎, 신문지, 풀 등으로 열매를 가려주어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열매가 상하지 않도록 한다.
-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는 고온에서 과실생장(과비대) 불량, 햇빛데임(일소과), 잎 가장자리가 타는 증상이 나타나므로 미세살수장치를 가동하여 과수원 내 온도를 낮춰준다.
- 소, 돼지, 닭 등 가축은 사육시설 벽, 지붕에 단열재를 시공하고 환풍기와 물안개 분무시설을 가동하고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
- 기호성이 높은 사료를 먹이로 주고 시원한 물을 자주 갈아주는 등 충분한 물을 공급한다.

- 호우, 태풍 대응 요령 -

-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한다.
- 밭작물과 과수는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여 습해를 예방하고 지주, 끈 등을 이용하여 과수의 쓰러짐을 방지한다.
- 경사지 밭 등은 짚, 산야초, 비닐 등으로 토양을 덮어주어 폭우로 겉흙이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다.
- 시설하우스는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고 골재 파손이 우려될 때는 비닐을 제거하도록 한다.
- 농작물이 침수가 되면 최대한 빨리 물을 빼주도록 하고 작물에 묻어 있는 흙 양금과 오물을 제거한 뒤 병해충 방제를 실시한다.
- 쓰러진 농작물은 세워주고 뿌리부분이 노출된 작물은 복토를 해주고 이랑사이 고인 물이 잘 빠지도록 고랑 및 배수로를 정비한다.

- 신속한 복구지원 및 당부사항 -

- 농식품부는 사전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작물별·생육단계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하여 응급복구를 유도하고,
- 피해가 심한지역에는 농진청, 각도 농업기술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30개팀, 3인1팀)’을 현장에 긴급 파견하여 복구기술을 지원하며,
- 농업재해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나,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농업인이 사전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해 줄 것과,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친인척을 둔 일반 시민에게는 기상특보 시 안부전화 등을 통해 농업인이 피해예방 행동요령을 준수토록 유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순천시, 7월16일 ~19일까지 밤나무 항공방제 실시

- 친환경 약제사용, 밤 재배농가 소득증대 지원 -

- 순천시는 7월 16일 ~ 19일까지 4일간, 친환경 약제를 이용해 밤 재배단지 640ha에 항공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산림청과 순천시가 공동 추진하는 이번 항공방제는 밤 생산농가의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해 주고, 친환경 품질 인증을 받은 약제를 사용으로 안전 먹거리로 생산할 계획이다.
- 밤나무 항공방제 기간 동안에는 방제구역 2km 이내 지역의 가축방목과 입산을 금지하고, 특히 양봉·양잠·양어장에서는 보호조치를 미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항공방제 일정은 16일 삼거동과 낙안면, 17일 송광면, 외서면, 주암면, 18일 상사면, 별량면, 승주읍, 월등면, 황전면(죽내), 그리고 19일 황전면(비촌, 모전)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다.
- 시 관계자는 “이번 항공방제를 통해 생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해 고품질 밤의 생산력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며 “기상상황과 헬기 지원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인근 주민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일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순천시



담양군, ICT 기술 활용해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한다

- 담양군, ICT 기술 활용해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한다 -

-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11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정보화교육장에서 ICT 기술 활용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한우리 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 이날 한우리 시스템 활용교육에는 젃소 사육농가, 축산관련 담당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손지용연구사의 지도로 한우리 시스템을 이용한 HACCP, 개체관리, 번식관리, 도체등급 관리 등을 진행했다.
- ‘한우리 시스템’은 가축사육부터 출하 뒤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력정보, 축산물등급판정정보, 혈통정보 등을 간편하게 볼 수 있고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장기록관리를 농가가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장관리 프로그램이다.
- 이병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한우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가축 사육과 관련된 통합적인 정보를 얻고,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 젃소 생산성 향상 등 농가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강조하면서 축산물 안전성 확보와 축산농가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담양군



곡성군, 토란소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만찬주 선정

- 곡성 토란소주 ‘도란도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만찬주 선정 -

-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산고을영농조합법인에서 만든 토란소주 ‘도란도란’이 지난 5일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환영식 및 환송식 만찬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곡성군은 전국 토란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토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토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품목이 필요했다. 마침 산고을영농조합법인에서도 지역특산물인 토란을 활용해 소주를 만들고자 했다. 이에 군은 조합 측에 공장 설립비 5억 원 중 3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도란도란’이 탄생할 수 있었다.
- 수차례 실패를 반복하다 조합은 증류 기술이 발달한 일본구마모토현 구마모리 지역 오이시 주조장에서 2017년부터 기술 연수를 받게 됐다. 마침 구마모리도 토란이 유명해 토란을 활용한 증류주에 대해 풍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었다.
- 오랜 준비 끝에 올해 3월부터 시판에 들어간 ‘도란도란’은 곡성토란과 국내산 쌀을 사용해 감압증류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자연의 맛을 그대로 간직한 은은한 풍미와 달콤하고 깊은 향이 일품이다.
- 산고을영농조합법인 하윤규 대표는 “각국에서 참가하는 선수단을 통해 세계적인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인 만큼 최고의 품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소감을 말했다.

*출처 : 곡성군



곡성군, ‘곡성에서도 애플망고가 자랍니다’

- 전남의 다른 지역보다 겨울 기온이 낮은 곡성군에서 아열대 과수인 애플망고를 재배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7일 군에 따르면 국내 애플망고 재배면적은 총 52.4ha 가량으로 추산되며, 대부분이 제주에서 재배되고 있지만 최근 전남과 경남의 일부 지역에서도 재배면적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 애플망고는 아열대 과수로 연중 10도 이상으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비교적 적은 지역이 재배적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군은 인근 지역보다 겨울 기온이 2~3도 가량 낮은 편이다. 군이 망고 재배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공장 폐열’이다.
- 정씨는 공장에서 버려지는 열로 물을 데워 농장 난방에 활용해 추운 곡성에서도 애플망고, 파파야 및 열대채소들을 재배할 수 있었다.
- 그는 “연중 10도 이상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10ha당 연 1000만 원이 넘는 난방비가 들어가는데 저희 농장은 폐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300만 원정도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수입산 망고는 유통기간 연장을 위해 현지에서 약간 덜 익은 과를 수확하거나 과실파리 등 검역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증열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과일 고유의 맛이 변한다.
- 반면, 수입산 망고와 같은 절차가 없는 국내산 완숙망고는 익으면 과피에 기름이 형성되어 달콤한 향을 발산한다. 그리고 황색의 과육을 한 입 가득 넣자마자 입안에 가득히 짙은 풍미가 퍼지고 매우 맛있는 단맛과 단향에 취할 수 있다.

*출처 :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곡성군, 쫄쫄쫄 달콤한 삼기 흑찰옥수수 본격 출하

- 삼기면 흑찰옥수수는 곡성에서도 일교차가 큰 통명산권역에서 재배돼 고소한 맛과 쫄쫄쫄 식감이 일품이다. 따라서 곡성군 삼기면은 광주전남권 시장에서도 흑찰옥수수 대표 재배지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 삼기면에서는 약 50ha에서 흑찰옥수수가 재배되는데 그 중 올해 2.7ha의 면적에서 일반적인 식재보다 10여일 가량 빠른 3월 하순 조기재배를 실시했다. 일반적으로 3월 식재한 경우 6월 하순에 수확이 가능한데 올해는 냉해와 낮과 밤의 기온차 등으로 전체적인 작황은 조금 늦어진 편이다.
- 삼기 흑찰옥수수는 그 맛을 인정받아 생산량 대부분을 농가 직거래를 통해 판매해왔다.
- 특히 1년 내내 삼기 흑찰옥수수가 유통될 수 있도록 가공품질 개선시범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쫄쫄쫄하고 고소한 흑찰옥수수를 급속냉동하여 갓 찌낸 맛으로 365일 즐길 수 있는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 곡성군은 이에 멈추지 않고 삼기 흑찰옥수수를 토란, 멜론에 이어 또 하나의 지역 명품 농산물로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출처 :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고흥군, 2019년 마늘 재배기술 교육 실시

- 고품질 고품마늘 안전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

-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8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늘재배 농업인과 고흥미래농업대학생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품질 마늘 생산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농촌진흥청 권영석 농업연구관을 초빙하여 마늘 신품종 소개와 마늘의 생리적 특성과 토양관리 등 고품질 마늘 생산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2019년 고흥 대서마늘 생육후기에 발생한 수침상, 갈변, 연화, 함몰 등 이상증상 발생 원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재배관리요령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 군 농업기술센터 류화석 소장은 “이번 고품질 마늘 생산 교육이 고흥 마늘의 품질고급화와 기후변화 따른 대응 기술을 습득으로 경쟁력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고흥마늘 재배면적은 약 1,253ha에 2만여 톤을 생산하는 전남 최대의 주산단지로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지리적표시제 제 99호로 등록되어 있다.
- 한편,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 마늘 생산 교육을 오는 15일과 22일 두 차례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마늘재배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반드시 교육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고흥군



보성군, 명품「보성키위」육성 프로젝트 스타트!

- 보성 전국 1위 최대 키위 주산지! -

- 전국 최대의 키위 산지인 보성군은 10일 보성키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명품 보성키위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 키위 최대 주산지 보성군의 키위 재배 면적은 229ha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성군은 금년 3월부터 시설 현대화 및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해 전문성을 높이고, 10월에는 국제 농업 박람회에 참가해 보성키위의 날 행사를 운영해 대한민국을 넘어 보성키위의 세계화의 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장기적으로 최고품질 브랜드 개발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사업을 발굴해 보성 키위 농업의 저변을 넓히고, 법인 단일화로 엄격한 품질관리를 가능케 하는 등 최고품질의 보성키위를 육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명품 키위 육성을 위한 보성군의 노력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농촌진흥청과 보성키위 경쟁력 향상 기반조성 사업을 진행해 2년 동안 10억여 원을 투자해 최고품질 키위단지를 조성하면서 국내산 키위 품질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

- 또한,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키위 결실안정을 위해 꽃가루 활력검사 서비스를 재배 농가에 제공함으로 안정적 재배환경을 조성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국 최고의 키위 주산지의 명성을 얻었다.
- 보성군은 국내 최대 키위 산지에 걸맞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키위 영농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보성키위 브랜드를 알리고, 대외 이미지 향상을 위해 SNS 홍보단을 자체 운영하여 홍보 활동에도 매진하고 있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보성 대표 특산품인 보성키위의 대내외적 이미지 향상을 위해 품질유지와 소비자 맞춤형 브랜드 개발을 통해 외국산에 대응하고 키위가 보성의 대표 특산물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아 농가의 안정적 소득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편, 명품 보성 키위는 10월 중순부터 수확해 맛볼 수 있다. 키위는 미국 식품영양학회 선정 가장 영양가 높은 과일로 비타민C의 경우 오렌지의 2배, 사과의 17배를 함유하고 있으며, 항산화작용, 변비 해소, 임신부 빈혈 예방 등 영양학적 가치가 매우 높아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과일이다.

*출처 : 보성군



화순군, 여름철 농작물 관리 총력

- 농작물 관리 기술 자료 배부하고 현장 지도 추진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여름철 농작물 관리 기술 자료를 제작·배부하고 현장 지도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 이에 따라 군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여름철 농작물 관리 기술 자료 3000부를 제작해 농업인상담소와 읍·면사무소에서 배부하고 있다.
-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농작물의 생육 중·후반기인 고온다습한 여름철 농작물 관리가 중요하다. 철저한 병해충 방제, 폭염·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한다.
- 벼는 중간물떼기(출수 전 30일까지 완료)를 통해 논에 실금이 가도록 말리면 벼 쓰러짐 방지, 햇새끼 억제, 유해 물질 제거로 벼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
- 이삭거름은 이삭패기 25일 전(7월 18일~25일 무렵)에 N-K비료 10~12kg/10a를 준다. 주는 시기가 빠르면 도복에 약해지고 만들어진 벼알을 다 채우지 못해 쭉정이가 많아진다. 잎 색이 진한 논, 낮은 온도가 지속되거나 장마가 계속될 때는 이삭거름으로 염화加里만 4kg/10a 줘야 한다.
- 콩은 밀식 등으로 쓰러짐이 우려되면 순지르기를 하는데 늦어도 개화 2주 전까지 완료해야 안정적으로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다. 콩의 생육이 나쁘면, 개화기에 요소를 10a당 4~6kg 주면 좋다.

*출처 : 화순군



해남군, 버섯종균배양센터 준공 종자산업 기반구축

- 1일 4만병 규모 버섯종균 연중 공급 가능 -

- 해남군이 관내 버섯 농가에 유량 종균을 공급할 버섯종균배양센터를 건립했다.
- 9일 준공식을 가진 버섯종균배양센터는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해남군 마산면 해남버섯(주)에 배양실 등 버섯종균배양시설을 4동, 2,970㎡ 규모로 신축하고, 종균생산기계 등 첨단자동화 설비를 갖추었다.
- 버섯종균배양센터에서는 1일 4만 병 규모의 새송이 및 느타리버섯 종균 생산이 가능해 종균 수요량을 외부에 의존해 왔던 관내 버섯재배 농가에 신선한 종균을 보급하고,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비용을 절감, 농가 소득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또한 우량품질의 버섯종균 생산과 재배기술을 효율적으로 증식·보급 할 수 있는 최신 기반시설이 구축됨으로서 현재 월 10톤 수준의 해외 수출을 확대하는 등 버섯농가 경쟁력 강화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버섯종균배양센터 건립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종묘증식보급 기반구축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됐다.
- 해남군에서는 43농가, 4.4ha 면적에서 연간 2,500톤의 병 버섯 및 느타리버섯을 생산하고 있다.

*출처 : 해남군



무안군, 단호박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각광

- 무안군(군수 김산)에서 재배된 싱싱하고 영양가 만점인 단호박이 소비자들의 식탁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 무안군 단호박 생산농가는 350호, 재배면적은 187ha로 금년 수매되는 물량은 약 4,500톤이다.
- 현재 단호박 생산자법인은 2곳으로 무안읍, 현경면을 주 사무소로 두고 있으며 생산된 단호박은 생산자법인과 계약된 업체를 통해 전량 판매되고 있다.
- 생산된 단호박은 kg당 750원에 수매되고 있으며 1마지기(660m²)에 90 ~ 100만 원의 농가 조수익을 올리고 있다.
- 단호박의 대부분은 대형마트, 인터넷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 되고 있으나 단호박 재배면적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 생산자 법인에서 직접 일본, 대만 등에 수출을 통해 국내 가격안정화에 노력을 하고 있다.
- 무안군에서는 단호박을 정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1읍면 1특화작물지원」품목으로 정하고 단호박 고품질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자 법인에게는 육묘장·저장시설을 참여농가에게는 시설하우스 및 덕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출 물류비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
- 군 관계자는 “우리군 대표적 품목인 양파 가격의 하락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요즘 새로운 대체작물인 단호박을 집중 육성하여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했다.

*출처 : 무안군



영광군, 조생종 벼 출수 후 포장관리 당부!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관내 조생종 벼가 일부 출수됨에 따라 조생종 벼 포장관리 요령을 발표했다.
- 영광군에서는 올해 이른 추석에 맞춰 약 150ha 내외의 조생종 벼를 재배하고 있다. 4월에 하우스 육묘하고 4월말부터 5월 상순에 모내기한 벼가 7월 9일에 이삭이 나오기 시작했다.
- 영광군 주요 조생종 품종은 조명1호인데 이번에 출수한 품종은 극조생종인 ‘기라라397’로 대마면에서 약 10ha 가량 재배되고 있으며 8월 하순이면 수확하여 소비자에게 햅쌀을 선보일 예정이다.
- 출수기 이후의 포장관리 요령은 먼저, 논물을 걸러대기하여 뿌리에 산소 공급함으로써 뿌리활력을 높여주어야 한다. 미질 향상과 도복에 유리하다.
- 두 번째로 적기에 병해충 방제를 해야 한다. 최근 먹노린재 발생 증가로 벼줄기가 우거지고 출수가 된 이삭을 흡즙하여 등숙 불량, 반점미 발생 등 품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발생 시 필히 적용약제로 방제해야 한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광군 주요 품종인 조명1호가 7월 20일경 출수될 것으로 보고 물 걸러대기와 적기 병해충 방제로 고품질의 햅쌀을 생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영광군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7. 15. 시카고 선물거래소)

- 옥수수 선물가격, 미국 기후에 대한 걱정으로 2주 만에 최고치 기록 -

-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3% 상승했다. 밀 선물가격은 옥수수와 대두 선물의 유출 강세가 조기에 감소하면서 금요일 상승세로 마감했다. 열대성 폭풍 배리는 수요일까지 남서부 및 중서부에 비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어, 연질적색 겨울 밀 수확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2.3% 상승했다. 다음 주 초 중서부의 남부와 동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열대성 폭풍 배리의 진행상황을 무역업자들이 주시하고 있다.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6% 상승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다음 주 미국 중서부 지역의 무더운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금요일 더 높은 수준으로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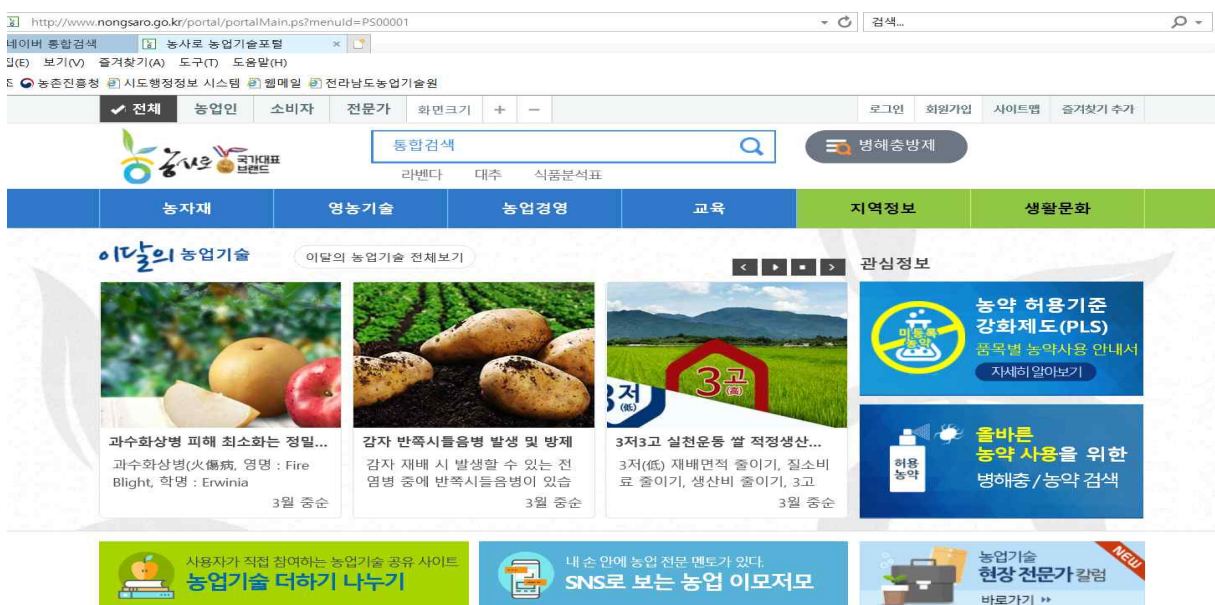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농촌진흥청 농사로

- 농사에 필요한 농업관측은 농촌진흥청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농사로에서는 농자재, 영농기술, 농업경영, 교육, 지역정보, 생활문화로 분류되어 있으며,
- 농업경영에서는 농산물소득정보, 우수사례, 경영기술, 농식품소비트렌드, 농축산물가격, 경제성분석기준자료, 농가경영관리프로그램, 농식품산업동향, 관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관측정보에서는 년도별로 엽근채소, 양념채소, 과일, 과채, 축산, 곡물, 버섯, 관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 농사에 필요한 농업관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www.aglook.krei.re.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는 농업관측, 관측연구 발간물, 품목동향, 소비정보, 알림광장, 본보소개, 농업전망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 농업관측에서는 엽근채소, 양념채소, 과일, 과채, 축산, 곡물, 버섯, 관측속보, Daily&Weekly를 해당년도와 월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엽근채소는 배추, 무, 양배추, 당근
 - 양념채소는 건고추, 양파, 마늘, 대파
 - 과일은 사과, 배, 감귤, 단감, 포도, 복숭아, 수입과일
 - 과채는 오이, 애호박, 토마토, 수박, 참외, 딸기, 풋고추
 - 축산은 한육우, 젓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 곡물은 쌀, 콩, 국제곡물, 감자
 - 버섯은 느타리, 양송이
- 품목동향에서는 가격&반입량, 도매가격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 가격&반입량에서는 엽근채소, 양념채소, 과일, 과채, 축산, 곡물 등
 - 도매가격동향은 품목별로 전일가격, 당일가격, 등락률 등
- 알림광장의 관측동영상에서는 농업관측을 동영상으로 보여준다.

The screenshot shows the KREI Aglook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like '농업관측', '관측연구 발간물', '품목동향', '소비정보', '알림광장', '본부소개', and '농업전망'. Below this, there's a main content area with several sections:

- 01 농업관측정보**: Information about agricultural observation.
- 02 품목동향**: Commodity trends section.
- 03 농업전망**: Agricultural outlook section.

There are also filters for year (2019), month (03), and category (엽근채소, 전체). A search bar is present. Below the filters, there are thumbnails for various reports like '2019-02-25 양묘자료', '2019-03-05 과채관측 03월호', '2019-03-04 양념채소관측 03월호', and '2019-03-04 엽근채소관측 03월호'.

At the bottom, there's a section for '관측동영상' (Observation Video) and '도매가격동향' (Wholesale Price Trend) for 2019-03-20. The price trend table is as follows:

품목	가격		전일대비 등락률(%)
	전일	당일	
양송이	17,555	19,179	9.3
풋고추	49,294	47,565	3.5

On the right side, there's a sidebar with a '바로가기' (Quick Links) section listing categories like '엽근채소', '양념채소', '과일', '과채', '축산', '곡물', '버섯', and '공표일정'. At the bottom right, there's a KREI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청렴한세상 - 청렴이란 무엇일까요?

清廉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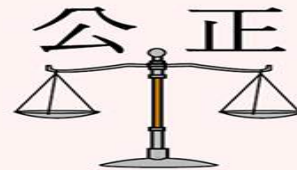


청렴의 반대되는 부패는 정치, 사상, 의식이 타락한 것으로 금전적인 욕심때문에 일어납니다.

6



이러한 청렴을 지키기 위한 6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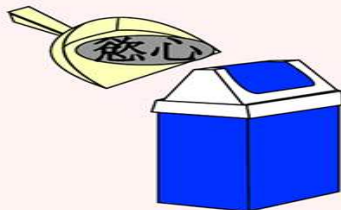
개인적인 차이를 넘어 차별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공정인 첫번째입니다.



두번째는 본인의 몫을 다하는 책임입니다.



세번째는 함께 지키는 약속입니다.



네번째는 욕심을 버리는 절제입니다.



다섯번째는 진실을 위한 정직입니다.



마지막은 공공을 위한 배려입니다.

清白吏

우리 모두 부패를 멀리하고 청렴해짐으로써 21세기 청백리로 거듭납시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주간 전남농업

VOL. 242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58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

